



# 오늘도 기도하며 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

나는 여러 번의 수술과 몇 가지의 질병을 갖고 살다 보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2월 11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다. 작년 사순절기도회에서 은혜 받고 일 년을 잘 보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픈 중에도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완주하겠노라고 결심하고 동참했지만 많은 약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내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변화”를 주제로 시간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저 그럭저럭 날짜만 가는 것 같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 교회 안에서 나만 아프고, 나만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도 안되고 나만 불행한 것 같아 몸도 맘도 너무 힘이 들었다. 하루는 남편을 통해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받기를 권하셨는데 정신 없이 새벽기도회에 참

석하는 나 자신의 믿음이 부끄럽고 준비도 없이 기도를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기도했지만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또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20일째 되던 날, 이제는 정상까지 올라왔으니 잘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기도하던 중 23일째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신 생각이 떠올라서 ‘맞아,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지!’ 하고 감동이 오면서 조금 전까지의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밀려왔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되뇌이면서 ‘맞아, 나는 은혜 받았어.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이 많았을까?’ 모든 것이 회개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 것을 깨닫고 왜 이리 미련했던 말

인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회개의 눈물을 펄펄 흘리며 기도를 했다. 정말 마음 속 깊이 감사가 나오고 좋은 백운교회,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 좋은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외치는 감사의 기도도 큰소리로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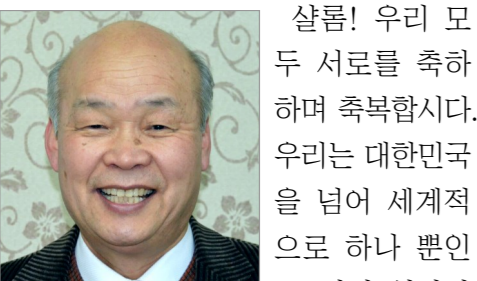
지금까지 긴 세월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과 아침저녁으로 엄마의 건강을 염려하여 전화하는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넓은 마음, 밝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사랑하는 마음, 품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도 기도하며 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제천/김기순 권사〉



##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 우리 서로를 축하하며 축복합시다!



살롬! 우리 모두 서로를 축하하며 축복합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하나 뿐인 112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고 예수만 섬기는 백운교회 공동체임을 다시 한 번 축하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 모두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교회의 기쁘고 슬픈 일, 그리고 힘들고 즐거운 일들까지 같이 겪으며, 또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200년, 300년 역사를 이어가는 이 시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기에 받아 마땅한 모두의 축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백세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양은 부자를 일컬어 백만장자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만석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살이의 흥망성쇠는 유혹에 넘어가 에덴동산에서 부끄러움을 알게 된 때부터 죄악에의 유혹을 이겨내느냐, 넘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백만장자도 만석꾼도 부럽지 않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영원

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손을 잡고, 새로움에 도전하여 용감하게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신 상군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백운교회의 역사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백운향〉 2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제 두 돌, 시작이지만 200년, 300년 역사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널리 드러나고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호 장로〉

## 4.13총선 제천, 단양지역구 입후보자



권석창(49세) 이후삼(46세) 김대부(54세)

기호1번	기호2번	기호3번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세명대초빙교수	정당인	정당인

### 제20회 국회의원선거 올바른 선택으로 후회없는 주권행사!

투표일: 2016. 4. 13(수) 오전 6~오후 6시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확산되도록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 실천해야 합니다. 투표참여와 공명선거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선량들을 뽑아 국민의 주권행사에 동참합시다.

### (1)40일 새벽기도, 변화하려면...

## 새봄맞이 전교인 대청소



3월 26일(토) 새봄맞이 전교인 대청소를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즐겁고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청소를 시작하기 전 모두 모여 단체로 한 컷.



▲부활절 계란을 포장하며...



◀교회 주변청소 및 보수작업 등.

## 100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 오후예배 후에 언제나 처럼 물컵을 들고 식당에 들어섰다. 총회장인 원 권사님이 머뭇거리며 “권사님 뭐 부탁 좀 할게요. 서지방회 선교회비 봉투가 하나 남았는데 권사님이 좀 내주시면...” 하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내 밀었다. 입으로는 “네 권사님” 하면서 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왜 하필이면 나한테 부탁을 할까?” 하면서 봉투를 받아서 성경책에 넣어 두었다. 사순절 새벽 여호수아 속회 헌신예배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수아 속회”라고 제목을 썼다. 그날 목사님 말씀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베풀라고 하셨다.” 다음주일에 봉투에 선교회비를 담아 원 권사님에게 전하면서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바로 다음날 5년 만에 임신을 한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황세영 산부인과에서 나 태어난 거 맞지?” “그래 엄마가 너 거기서 낳았어.” 우리 딸이 선택해서 간 병원이 바로 자기가 태어난 그 병원이었다. “엄마 오늘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40주년 개원행사로 그 병원에서 태어난 딸이 또 아기를 낳으면 진료비와 입원비 50%할인 행사를 한데.” “어머 그래 잘 됐다.” “가족 증명서 떼어가면 된다

고 하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지방회 선교회비 2만4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갚아 주신다고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간증도 하고 축하도 받았다.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8〉 올해 받은 말씀카드입니다. 〈홍순정 권사〉

